

#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김영희·정희정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Th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im, Young Hee · Chung, Hee Jung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ung,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social adjustment which was measured as pro-social behavior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children.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The subject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ere 193 fourth and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as analyzed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2.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chil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social behavior, while,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ggressive behavior of the child. Second, the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had direct effect on the prosocial behavior and the aggressive behavior of the child. Third, the direct impact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social adjustment was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variab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adjustment during late childhood.

Key word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elf-regulation, socia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 I. 서론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아동이 자신에 대한 독특성과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부모와의 조력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찍이 상담이론 학자들은 조력(helping)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촉진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Carkhuff 1967; 이상길 2002에서 재인용). Carkhuff(1967), Rogers (1961)는 조력적 인간관계 조건으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자기공개, 즉시성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잠재능력이 성장, 발달한다고 강조하였다. Rogers에 의하면 상담자가 촉진적 인간관계를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 전달하고 이를 내담자가 진솔하게 지각함으로써 내담자의 인성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자녀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조력적 인간관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인성 및 적응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인간관계, 특히, 어머니-자녀와 같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공감적 이해, 존중, 즉시성 등의 조력적 인간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아동후기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 이루어지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정의하였다. 즉, 촉진적 의사소통이란 어머니가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이를 왜곡없이 충분히 표현하고, 자녀의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깊은 존중과 관심을 나타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 상황에서 직접적이며 상호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적응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일찍이 부모역할효율성훈련(PET)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Gordon (1970)의 PET 프로그램은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을 표현하는 적극적 경청기법을 부모에게 학습,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곧 촉진적 의사소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실증분석에 의

하면 PET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Church 1978; 마정건 1988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서구에서 촉진적 의사소통과 병리적 인성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Truax & Wargo 1966; 정세용 1994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촉진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였을 때 히스테리 또는 정신쇠약증이 감소되었으며 자아개념 및 사회적응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국내의 경우, 촉진적 의사소통 개념을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용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몇몇 연구들은 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내적 지각체계를 의미하는 인성(마정건 1988)이나 자아개념(황동연 1992), 학업성취(임은미 1991; 이상길 2002에서 재인용), 문제행동(정세용 1994)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정건(1988)은 부모-자녀간 조력과정에서 촉진수준의 관계지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인성특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 및 즉시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병리적 인성특성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한 학령기 아동은 낮게 지각한 아동보다 사회적,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으며(황동연 1992), 과잉행동, 위축행동 및 공격적 행동 등의 행동문제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용 1994). 최근에는 학령기 아동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고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수록 자녀들은 더 친사회적, 사교적으로 행동하고 대인관계 적응성 및 인기도가 높았다(전정미 2005).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후기 자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포

함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다룬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같은 환경적 변인 뿐 아니라 아동의 내적 변인인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지적한다(김혜경 2006; 정현희·정순화 2007; Eisenberg & Fabes 1992). Eisenberg 와 Fabes (1992)에 의하면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래집단에 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있었으며(임연진 2002),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김은경 등 2007), 공격적인 행동(정현희·정순화 2007; Goodman et al 1993), 불안, 위축행동(정현희·정순화 2007)이 덜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조절 능력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전숙영 2007).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며, 자기조절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혜경(2006)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행동통제력을 높여주는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무시, 거부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은 유아를 불안과 화나는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적응간의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관계를 검증하고,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영향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다니고 있는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아동 193명이다.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4, 5학년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아동기 후기가 자율성이 발현되며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사 아동의 성별 인원 구성은 남아가 103명(53.4%), 여아가 90명(46.6%)이며, 평균 연령은 12.3세이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넉넉한 편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58.5%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대부분으로 78.3%의 비율을 나타냈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척도, 자기조절 능력 척도, 사회적 적응 척도이다.

####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는 Carkhuff(1967)의 척도를 기초로 마정진(1988)이 제작하고 정세용(1994)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Carkhuff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7개의 인간관계 조건을 촉진적 의사소통의 변인으로 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마정진 1988; 이상길 2002)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특성,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3개 요인, 즉, 공감적 이해, 긍정적 존중, 즉시성을 선정하였다. 요인별 6개 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예를 들어보면, '성적표 여기 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큰

일 낫어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원 다녀와서 숙제하고 나면 맥이 빠져요’, ‘엄마는 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등이다. 각 문항마다 Carkhuff가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상된 언어자극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을 1수준에서 5수준까지 제시하였는데, 수준 1은 비촉진 수준으로 1점, 수준 2는 비교적 비촉진으로 2점, 수준 3은 기본 촉진적 수준으로 3점, 수준 4는 촉진적 수준으로 4점, 수준 5는 심화촉진 수준으로 5점으로 계산하였다. 최소 18점부터 최고 90점 까지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내면적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여 표현하고, 자녀의 경험에 대하여 존중과 관심을 나타내며, 현 상황에서 직접적이며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0.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 자기조절 능력

권효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아동이 정서 또는 행동을 얼마나 통제, 조절하는지 질문하였다. 총 3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흥분하거나 긴장되어 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게임에서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등이다. 3-1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정서 또는 행동에 관한 조절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64$ 이다.

## 3) 사회적 적응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정도를 측정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Preniere와 Dumas(1996; 권연희와 박경자 2003에서 재인용)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을 참조하여 6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점-3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친사회적 행동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66$ 이다.

공격적 행동은 권연희와 박경자(2003), 권효정(2007)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표출하고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공격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73$ 이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임의표집방법에 따라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3개교에서 1학급당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총 6개 학급에 있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후 193명의 자료가 SPSSWIN(Version 12.0)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r=.27, p<.001$ ),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회귀식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 변수의 상관관계는  $r=-0.36 (p<.001)$ 의 낮은 정도로 나타나, 독립적 영역의 두 가지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

을 통한 매개변인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매개효과 분석법에 의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독립변수와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는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 매개모델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였는데, 완전매개 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며, 부분매개 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 둘째,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셋째,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기조절 능력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하여 첫번째 단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두 가지 영역, 즉,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적 행동과의 관계를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에 아동의 성별, 어머니 학력과 촉진적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격적 행동에는 촉진적 의사소통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어머니가 행하는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아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공격적 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회귀식에서의 설명력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25%, 공격적 행동에 대하여 9%였다.

Table 1. Regression coefficients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	Prosocial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B	β	B	β
Sex <sup>1)</sup>	2.69	.36***	-.66	-.09
Economic condition	-.25	-.05	.23	.05
Mother's schooling	-.93	-.16*	.64	.13
Facilitative communication	.05	.19**	-.06	-.23**
Intercept	20.94		15.16	
R <sup>2</sup> (adj. R <sup>2</sup> )	.25(.23)		.09(.07)	
Model F	15.31***		4.84***	

1) Boy=0, Girl=1 \*\* p<.01, \*\*\* p<.001

2.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기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행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아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정서나 충동을 조절, 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으며, 앞에서 분석한 Table 1과 비교하면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s on children's self-regulation

Independent variable	Self-regulation	
	B	β
Sex <sup>1)</sup>	.46	.10
Economic condition	-.25	-.08
Mother's schooling	.05	.02
Facilitative communication	.04	.24***
Intercept	7.05	
R <sup>2</sup> (adj. R <sup>2</sup> )	.09(.07)	
Model F	4.43**	

1) Boy=0, Girl=1, \*\* p<.01, \*\*\* p<.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Independent variable	Prosocial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B	$\beta$	B	$\beta$
Sex <sup>1)</sup>	2.53	.34***	-.55	-.08
Economic condition	-.17	-.03	.17	.04
Mother's schooling	-.95	-.17	.66	.13
Facilitative communication	.04	.13*	-.05	-.19*
Self-regulation	.36	.23***	-.23	-.16*
Intercept	18.41		16.81	
R <sup>2</sup> (adj. R <sup>2</sup> )	.30(.28)		.12(.09)	
Model F	15.67***		4.92***	

1) Boy=0, Girl=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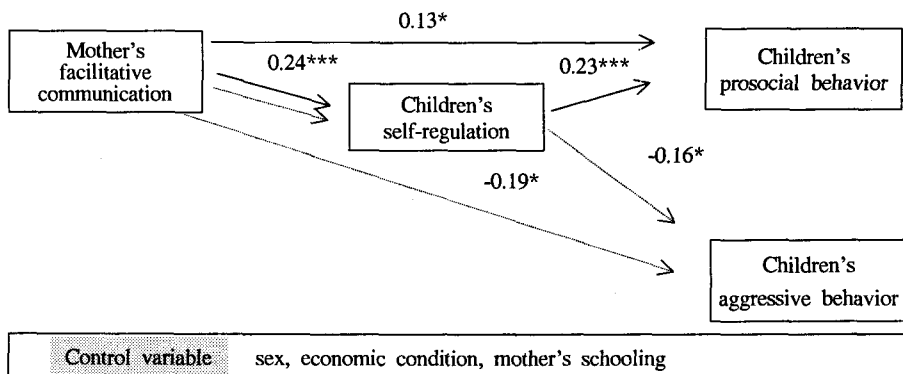
먼저,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별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거나 공격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투입하여 자기조절 능력과 촉진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 $\beta=.19 \rightarrow \beta=.13$ ), 자기조절 능력이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촉진

적 의사소통정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 매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영향력 ( $\beta = -.23$ )은 매개변인인 자기조절 능력을 함께 투입했을 때 그 영향력 ( $\beta = -.19$ )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조절능력은 촉진적 의사소통이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정도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에 자기조절 능력이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두 가지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을 매개로 하였을 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아동 후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의 경향은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 존중하며 조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 자신의 충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 Th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with self-regulation as the mediating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발달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아동 후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문제인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정도와 어떻게 관련되며, 촉진적 의사소통과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후기 아동 193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공격적 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병리적 인성특성(마정진 1988), 아동의 문제행동(정세용 1994)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촉진적 의사소통 기능을 살펴본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정도는 부정적 측면의 행동문제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조건없이 존중하며 자녀와 촉진적으로 대화할 때 아동은 심리적 안정을 보이며 성장하여 부적응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 적응적이며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마정진(1988)도 부모-자녀간 조력과정에서 구체적 문제해결이나 행동수정의 기법 등의 전략보다는 촉진적 인간관계 그자체가 자녀의 건강한 인성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촉진적의사소통의 직접적 효과는 친사회적 행동정도보다 공격적 행동정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또래관계에서 많이 노출되는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사용되는 촉진적인 의사소통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아동에

게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온정적인 양육을 할 경우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결과(이지희·문혁준 2007)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들의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방향 설정에 한 가지 지침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중간에서 매개하는 아동의 내적 특성, 즉, 자기조절능력에 의해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학령기에 그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이나 방치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가진 정서 조절 능력 등의 심리적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들의 정서적인 능력을 명확히 판단하여 학령기 아동 적응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심리적 측면의 접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동의 정서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되고 있으나(Goleman 1995),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이나 과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절실히 요구된다. 아동이 학습하는 여러 교과목이나 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아동기 또래관계에서의 행동문제를 상당부분 감소시키며 심리적 건강과 관련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정현희·정순화 2007).

셋째, 친사회적 행동에는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이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에 남학생이 사회적으로 협동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적 측면의 접근 또는 환경적 개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임의표집방법에 따라 선정된 서울에 위치한 몇몇 초등학교의 학생들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비롯한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Maccoby & Jacklin 1980; 이지희·문혁준 2007에서 재인용), 추후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횡단적 연구를 갖고 자기조절능력 등의 발달과정상의 개념을 측정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촉진적 의사소통, 자기조절능력, 공격적 행동 지각에 대한 자료를 질문지를 통한 아동의 자기보고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 아동의 보고와 부모의 보고와의 차이비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검증을 통해 자율성이 발달되고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이 시작되는 학령후기에 아동자신들의 조절능력의 발달이 적용에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모와 조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상담자 및 교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학령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연희·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권효정(2007)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자기조절 능력 및 분노 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김혜경(2004)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정진(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강지훈(2005)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26(1), 1-14.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손승희·이은혜(2003)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송해영·엄정애(2007)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 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4), 87-96.  
 이상길(2002)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127-141.  
 이지희·문혁준(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전정미(200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세용(1994)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희·정순화(2007)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 유능성 지각과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7), 93-103.  
 한영신·김광웅(2003)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소외감 연구. 아동연구 16(2), 29-48.  
 황동연(1992) 국민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unola K, Nurmi J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Baron RM,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Carkhuff RR(1967)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facilitative interpersonal processes. J. of Counseling Psychology 14, 67-72.  
 Eisenberg N, Fabes RA(1992) Emotion, regulation and



-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 14). Newbury park CA: Sage.
- Fabes R, Leonard S, Kupanoff K, Martin C(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n Books.
- Goodman SH, Brogan D, Lynch ME, Fielding B(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rdon T(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김인자 역).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Gottman JM, Katz C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Marta E(1997)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and psychosocial risk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communication, support and gender. *J. of Adolescence* 20(5), 473-487.
- Rogers CR(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